

## 제6회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

2011.10.10(월) 비전관4401

PM2:00-2:50 강좌1, 논평

2:50-3:00 휴식, 사진촬영

3:00-4:00 강좌2, 질의응답

### <강좌 1>

##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역사적·성서적 유산

박 경 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 I. 시작하는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개신교회를 놀라게 하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약 4,700만 명의 한국인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497만 명(53.1%)에 달했다. 이 중 불교 인구가 1,072만 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861만 명(18.3%), 천주교 514만 명(10.9%)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그동안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개신교 신자를 1,000만 혹은 1,200만 명이라고 밝혀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더욱이 개신교인의 수가 10년 전인 1995년의 통계청 조사 결과(876만 명, 19.7%)보다 오히려 14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은 성장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개신교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게다가 불교는 10년 전보다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특히 천주교는 219만 명이나 증가함으로써 무려 74.4%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라고 진단할 만한 상황이다.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주관 하에 2008년과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sup>2)</sup>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17.6%로 2008년(18.4%)과 2009년(19.1%)에 비해 더 낮아졌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33.8%로 2008년(33.3%)과 비슷하고 2009년(47.4%)에 비해서는 13.6% 낮아졌고,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2008년(48.3%)과 비슷하고 2009년(33.5%)로 비해서는 14.9%나 높아졌다.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수치는 줄어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수치는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간 높아지는가 싶더니 2010년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한 신뢰하는 종교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개신교라고 대답한 사람은 20.0%(2009년 26.1%, 2008년 18%), 가톨릭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1.4%(2009년 36.2%, 2008년 35.2%), 불교라고 답한 사람은 33.5%(2009년 22%, 2008년 31.1%)였다. 2008년 18%로 꼴찌였던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2009년에는 26.1%로 상승하여 중간을 지키더니 2010년에는 20.0%로 다시 꼴찌로 추

1) 『한국의 종교 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9.

2)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바른교회 아카데미/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협력, 2010년 12월 15일).

락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2008년 40.95점, 2009년 46.36점, 2010년 41.48점으로 중간 이하의 낙제에 가깝다.

호감을 가진 종교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도 개신교회는 2008년의 경우 불교(31.5%), 가톨릭(29.8%)에 이어 20.6%를 얻는데 그쳤고, 2009년에는 28%를 획득함으로써 가톨릭(33.7%)에는 뒤지지만 불교(26.4%)보다는 앞서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2010년의 결과는 또다시 가톨릭(35.5%)과 불교(32.5%)에 훨씬 못 미치는 22.4%를 기록함으로써 꼴찌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향후 개신교회의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개신교회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네티즌이나 젊은 세대의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한국 개신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사분오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싸우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교회 분규가 일상화된 것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는 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개신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유독 개신교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대북지원문제, 4대강 문제, 최근 치러진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 문제 등에서도 개신교회가 사사건건 서로 다른 찬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아할 것이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장로교 내에서도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개신교회의 분열상은 개신교회 그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잘잘못을 따질 것도 없이 모든 개신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로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교회, 특별히 수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밝혀주는 역사적인 유산들과 성서적 가르침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장로교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이 교회일치와 연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실제로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그런 후에 한국교회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개혁교회 전통과 한국교회사 안에 나타난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유산은 오늘날 유독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한국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칼뱅의 유산

### A. 루터와 츠빙글리를 중재하려고 하다

칼뱅의 주저인 『기독교강요』 중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4권의 처음 장만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참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을 혐오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사악한 분리를 피해야만 한다.”<sup>3)</sup>고 강조하고 있다. 맥닐이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칼뱅만큼 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맹렬하게 비판하지는 못했다.<sup>4)</sup> 따라서 칼뱅은 교회개혁운동의 선배였던 루터(Martin Luther)와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의 불화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면서 중간에서 이들을 화해시키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치를 회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다.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불화의 핵심은 성만찬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 1529년 두 진영은 마르부르크에서 회담<sup>5)</sup>을 가져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루터는 끝까지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corpus meum)라는 제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주장하였고, 츠빙글리는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육체적 임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은 분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뱅이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의 중재자로 나섰다. 칼뱅은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을 통해 두 진영을 화해시키고자 하였다.<sup>6)</sup> 여기에서 칼뱅은 마르부르크 회담의 실패는 서로를 선의로 대하기보다는 경원시하고 각기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한 태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칼뱅은 두 진영의 유연하지 못한 적대적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루터의 정(thesis)과 츠빙글리의 반(antithesis)을 조화시켜 하나의 합(synthesis)을 만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칼뱅은 영적 임재설로써 루터의 육체적 임재설과 츠빙글리의 상징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칼뱅은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이 우호적인 태도와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이것은 사분오열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충고라고 여겨진다.

## B. 『취리히합의』를 통해 개혁교회의 일치를 이루다

칼뱅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루터는 1544년 『거룩한 성례에 관한 간략한 고백』을 출판하여 츠빙글리주의자들을 공격하였고, 시편 1편을 패러디하여 “복 있는 사람은 성례주의자들의 피를 좇지 아니하며 츠빙글리주의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취리히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sup>7)</sup>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1545년 『참된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츠빙글리의 성만찬론을 옹호하고, 루터의 책을 “악의, 비기독교적인 표현, 중상 모략하는 말들, 다투려는 마음, 불순한 언사, 분노, 속임수, 걱정과 격노로 가득 찬”<sup>8)</sup>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IV, 1, 10.

4)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180.

5) 마르부르크 회담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The Marburg Colloquy and the Marburg Articles, 1529,” *Luther's Works* 38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5-89를 참조하라.

6)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142-166.

7) Brian A. Gerrish, “The Pathfinder: Calvin’s Image of Martin Luther,”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33.

8)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Agreement of Zurich (1549),”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이런 상황에서 칼뱅은 루터와 불링거에게 편지를 보내 양 측을 화해시키고자 애썼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불링거를 대표로 하는 취리히의 지도자들과 성만찬에 관해 합의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뒤이어 루터주의자들과 일치에 이르는 것이 전략상 좋으리라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취리히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칼뱅이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들을 읽어 보면 복음주의 교회들의 일치를 향한 그의 열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친애하는 불링거, 지금 이 순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사이에 형제적 친교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일꾼들과 더불어 교제와 사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 나로서는 내 힘이 미치는 한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sup>9)</sup>

만일 우리에게 만나절이라도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하는 일에서도 쉽게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러한 작은 차이가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sup>10)</sup>

결국 칼뱅은 직접 취리히로 찾아가 불링거와 취리히의 지도자들을 만나 1549년에 2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취리히합의』 문서를 내기에 이르게 된다.<sup>11)</sup>

『취리히합의』는 칼뱅과 불링거를 연합시켰고, 제네바와 취리히의 교회들을 하나의 개혁교회로 단단하게 결합시켰다. 그리하여 스위스에서 일어난 교회개혁 운동을 개혁교회 전통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취리히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칼뱅이 먼저 주도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양보했다는 데서 우리는 그의 교회일치를 향한 열망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취리히합의』는 분명 스위스 개혁교회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루터주의자들과의 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1546년 루터가 죽은 후에 루터파는 엄격하게 루터를 따르려는 사람들과 멜란히톤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은 이제 칼뱅까지도 츠빙글리주의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서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 벌어졌던 성만찬 논쟁에 이어서 소위 ‘제2의 성만찬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문서 논쟁이 불붙게 되었다.<sup>12)</sup> 칼뱅의 의도는 먼저 스위스 내에서 일치를 이룬 후 독일의 루터주의자들과도 합의에 도달하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루터주의와 개혁교회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과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 칼뱅의 열정과 헌신만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

*Prism of Reform*, ed. Timothy George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90), 46.

9) 1540년 3월에 보낸 편지.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184-185.

10) 1544년 11월에 보낸 편지. Timothy George, “John Calvin and the Agreement of Zurich (1549),” 46.

11) 『취리히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편지왕래, 본문, 해설이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2,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199-244에 수록되어 있다. 『취리히합의』에 대한 분석은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교회의 신학자 칼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07-127을 참고하라.

12) 칼뱅과 엄격파 루터주의자였던 요아킴 베스트팔과의 문서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경수, “칼뱅과 베스트팔: 16세기 성만찬에 관한 일 논쟁,” 『교회의 신학자 칼뱅』, 129-146을 참고하라.

### C. 잉글랜드 교회와의 교제를 꿈꾸다

칼뱅의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노력은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의 범위를 넘어서 잉글랜드의 교회에까지 확장되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크랜머(Thomas Cranmer)는 칼뱅에게 보낸 편지(1552년 3월 20일)에서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교회들의 일치를 논의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모임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답장(1552년 4월)에서 칼뱅은 당시의 분리적인 경향을 한탄하면서 크랜머의 제안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무릅쓰고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다양한 교회들로부터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신앙의 요점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논의한 후에 일치된 합의에 따라 성서의 참된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된 악들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한 일이 있으니, 즉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인간적 교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모두 말하고 있긴 하지만 진심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대로 하지 않고 유보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의 죄 많은 일들에 사로잡혀서 전체 교회의 안전과 경건에는 무관심한 지도자들, 사적인 평안만으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비난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분리되어져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열 개의 바다라고 해도 기꺼이 건널 것입니다.<sup>13)</sup>

칼뱅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의 분열이 자기 시대의 중요한 죄악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크랜머와 칼뱅의 이 계획은 잉글랜드에서 1553년 메리(Mary of Tudor)가 왕좌에 오르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잉글랜드의 지도자들이나 개혁자들과 주고받은 칼뱅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가 잉글랜드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칼뱅이 자신의 이사야서 주석을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하고, 몇 년 뒤에는 이사야 주석 제2권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헌정한 것도 잉글랜드 교회와 연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칼뱅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루터주의자나 츠빙글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교회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1560년 12월에 프랑스의 개혁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칼뱅은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의 차이점을 해결할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회를 개최를 희망하였다.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분열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회(a free and universal council)를 가져야만 합니다. 공의회는 장소, 사람, 진행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만일 공의회가 목적이 기독교계의 모든 어려운 난제들을 푸는 데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보편적이지 못하다면 단지 공의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sup>14)</sup>

크랜머의 제안에 대한 칼뱅의 답변이나 자신의 자유롭고 보편적인 공의회에 대한 비전은 그가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얼마나 항구적으로 노력했는지

13)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Vol. 2*, ed. Jules Bonnet (New York: Burt Franklin, 1972), 347-348.

14)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Vol. 4*, 158.

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 D. “디아스포라” 개혁교회들과 연대하다

칼뱅은 제네바에 있으면서 저술활동과 서신교류를 통해 유럽 전역에 새롭게 형성된 개혁교회들, 예를 들어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개혁교회들을 보살폈다. 제네바가 유럽 개혁교회의 요람이 된 데에는 1559년 제네바에 설립된 제네바아카데미의 영향이 컸다.<sup>15)</sup>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개혁전통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존 녹스(John Knox)의 경우에도 제네바를 방문하여 영어권 피난민 교회를 섬기면서, 칼뱅의 신학, 예배, 그리고 교회정치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제네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로교회를 조직하였다.

칼뱅은 디아스포라 개혁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면 언제든지 그들을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예를 들어 1541년 뇌샤텔에서 칼뱅의 선배 개혁자였던 파렐이 부당하게 면직되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칼뱅은 피에르 비레(Pierre Viret)를 뇌샤텔로 보내 그곳의 불안을 가라앉히고자 하였다. 프랑크푸르트의 피난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칼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편지를 보냈으며, 1556년에는 직접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두 주간을 머물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다.<sup>16)</sup>

제네바 교회를 위해 준비한 1545년 요리문답 서문에서 칼뱅은 동(東)프리슬란트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제네바 요리문답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는 각 교회의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요리문답이 공동의 신앙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다른 교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네바 요리문답을 출판하였던 것이다. 또한 칼뱅은 폴란드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사정을 충분히 살핀 후에, 자신은 비록 장로회 정치체제를 옹호하지만 폴란드 교회를 위해서는 감독체제를 권면하기까지도 할 만큼 유연성이 있었다.

또한 칼뱅은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두 개혁운동 진영, 즉 발도파와 후스파와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발도파는 12세기에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었던 피에르 발도(Pierre Waldo)의 청빈 사상을 좇아 시작된 개혁운동이었지만 결국 이단으로 선포되었다. 발도파는 북이탈리아의 산악지대로 도망하여 박해를 피해 생활하다가,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는 프로테스탄트로 자처하였다. 칼뱅은 개혁과 신앙과 교회질서를 수용한 발도파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목회자들을 파송하였으며, 1545년 프랑스 왕 프랑수아가 발도파 신자들을 학살했을 때는 그들을 위해 정치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는 동안 후스(Jan Hus)의 추종자들인 체코 형제단의 지도자들과도 친분관계를 맺기도 하였다.<sup>17)</sup>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가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III.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한국교회사의 유산

15) 제네바아카데미에 관해서는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교회의 신학자 칼뱅』, 311-335를 참고하라.

16) 칼뱅이 베른의 Wolfgang Müslin에게 보낸 1556년 10월 26일자 편지를 보라.

17) Jane Douglass, “Calvin in Ecumenical Context,”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08-309.

## A. 장로교 공의회(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초기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까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적극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초기 한국교회의 일치 정신은 오늘날 분파성과 당파성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초기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회들의 연합에 대해 살펴보자. 19세기 말 한국에 입국한 장로교 선교회를 시간 순으로 보면 미국 북장로회(1884년), 호주장로회(1889년), 미국 남장로회(1892년), 캐나다장로회(1898년)였다. 1884년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회는, 1889년 입국한 호주 장로회와 더불어 장로교 공의회를 결성하여 선교를 위한 첫 연합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호주 장로회의 선교사 데이비스(J.H. Davies)가 죽자 사실상 해체되었다가, 1892년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자 1893년 남·북장로회 선교공의회로 재조직되었다. 이 공의회는 이후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까지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장로교 선교회의 연합공의회가 되었다. 공의회는 “선교회들의 활동에 있어서 방법의 통일성과 노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sup>18)</sup> 그리고 한국에 “개혁신앙과 장로교 정치형태를 지닌 하나의 토착교회”<sup>19)</sup>를 위한 기구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공의회는 처음에는 단지 권고적 권한만을 지녔고 개 선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01년 무렵부터 점차로 정치적인 권한까지 보유하게 되어, 1907년 장로교 독노회가 설립되기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실제적인 정치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공의회는 목회자 양성, 의료, 교육, 언론 분야에서 협력하여 평양장로회신학교, 세브란스병원 등을 공동운영하였고, 『그리스도신문』, 『The Korea Field』 등의 신문과 잡지를 공동으로 발행했다.

## B. 복음주의 연합공의회(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05년에 이르러서는 신앙부흥운동이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4개의 장로교 선교회와 2개의 감리교 선교회(미국 미감리회와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이 모여 새로운 선교협의체를 만들었다. 1905년 9월 150여 명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화여학교 예배당에서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를 결성하고, 연합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던 언더우드(H.G. Underwood)를 초대의장에 선출한 것이다. 연합공의회는 “선교사역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민족교회를 조직하는 것을”<sup>20)</sup> 목적으로 하였다. 베른하이젤(C.F. Bernheisel)은 1905년 9월 13일 일기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간밤에 중요한 회의가 이화학당에서 열렸다. 모든 개신교 선교회의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18) Charles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335.

19) *Ibid.*, 106.

20) *Ibid.*, 149 그리고 Hugh Miller,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 Federal Council,”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34), 256.

한 모든 사람들은 일체의 사회사업과 한국교회 통합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에서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를 결성했다. 이것은 중대한 운동이고 성공하리라 믿고 기도한다.<sup>21)</sup>

이것은 무어(S.F. Moore)의 표현대로 한국교회사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회의”가 되었다.<sup>22)</sup>

연합공의회 결성과 그 활동에서 초대의장을 맡았던 언더우드는 연합운동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김인수는 언더우드의 교회연합 정신과 활동을 고찰한 논문에서 언더우드의 연합정신의 예로, 한국어 어학 선생으로 가톨릭 신자를 초빙한 일, 초교파 구호소를 설치한 일, 찬송가에서 교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용어를 자제한 일을 언급하였고, 또한 그가 장로교 공의회,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공의회, 대한성교서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서번역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sup>23)</sup> 언더우드의 아내였던 릴리아스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그는 결코 종파적이거나 계급적이거나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가 모든 인종, 민족, 계급, 연령,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의 존재의 모든 흐름은 연합을 향하고 있었다.”<sup>24)</sup>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릴리아스는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염원 중의 하나는 선교지의 유기적인 연합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그는 평생 동안 바라고, 기도하고, 일했으며, 이 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sup>25)</sup>고 말한다. 릴리아스의 이러한 표현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었다. 언더우드 자신의 말에서 이런 연합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 기독교 정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이 모든 것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하나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이 교회는 유능하고 잘 훈련받은 헌신된 토착민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로서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공회인,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스키티아인, 노예, 자유인, 무할례자, 할례자의 분파가 없는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sup>26)</sup> 언더우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비단 선교지역 분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교회 즉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사역할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땅에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언더우드는 단지 장로교회라는 교파 교회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교회를 위해 애썼으며, 교회 일치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연합운동에 헌신하였다. 그가 복음주의연합공의회 초대의장을 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연합공의회는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지 분할협정이라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실험하였고, 이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합공의회는 한국에서 하나의 민족적 복음주의 교회를 조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하여 장로교와 감

21) Charles F. Bernheisel,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김인수 옮김,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서울: 쿰란출판사, 2004), 256.

22) S.F. Moore, “An Epoch-Making Conference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8/9 (September, 1905), 689-692.

23) 김인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칼 정신과 사역,” 『교회, 민족, 역사』 민경배박사교회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4), 211-229.

24)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38.

25) Lillias H. Underwood,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241.

26) Horace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125.

27) Horace. G. Underwood, “Division of the Field,”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9), 213.



리교라는 교과 이름을 버리고 “대한예수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민족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캐나다에서 작성된 신조를 “대한예수교회”의 신조로 삼을 것을 검토하였다.<sup>28)</sup> 한 보고서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희망하는 목표는 하나의 민족적 복음주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진리의 특수한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교리의 상이점들을 역설하거나 영속시키려고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교파적인 명칭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sup>29)</sup>

보고서는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는 논쟁적인 용어들을 던져 버리고,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된 입장을 취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니 칼뱅주의니, 혹은 신학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인간의 의지인지 하나님의 주권인지 하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논쟁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졌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기 위해 손을 잡았다.<sup>30)</sup>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주목할 만한 운동이었다.

연합공의회는 연합사업의 진척을 위해 언더우드(H.G. Underwood, 북장로회), 레이놀즈(W.D. Reynolds, 남장로회), 노블(W.A. Noble, 미감리회), 무스(J.R. Moose, 남감리회)로 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연합공의회의 요청에 따라, 1906년 2월 23일 의장인 언더우드의 집에 모여 연합공의회와 민족교회의 관계, 선교지역 분할, 각종 연합사업의 진행에 대해 논의해 다가오는 총회에 보고하였다.<sup>31)</sup> 1906년 9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연합공의회 총회 때에는 교리의 조화, 교회정치 조화, 선교지 분할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토의되었다. 이처럼 교리와 교회정치의 차이까지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은 다른 선교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놀랄 만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연합공의회는 함께 성서를 번역하고 찬송가를 발행하고, 각자가 발행하던 정기간행물도 통합하고, 연합사경회를 비롯한 강단교류를 시작하였으며, 감사절도 같은 날짜를 정해 지키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인 연합운동과 사업을 벌여나갔다.

1908년 9월 『Korea Mission Field』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공의회 활동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교회의 교리, 정치, 조직, 연합사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서 두 교파가 기꺼이 합친 것보다 더 고상한 일은 없었다. 아무런 알력도, 거침도, 이기심도 없었다. 한 쌍의 정신이 함께 접목되어 한국교회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활력이 되었다.”<sup>32)</sup> 연합공의회는 서로 다른 정신을 가진 교파가 어떻게 하나로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이 되었으며, 미래의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예시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 장로교 개혁자 칼뱅과 녹스의 정통성과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의 열정을 동시에 지닐 수 있고 또 지녀야 한다는 점을 밝혀 준 것이다.<sup>33)</sup>

1909년 한국 선교 25주년 기념보고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최근 이루어진 성과 중

28) Hugh Miller,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 Federal Council,” 256.

29) “Missionary Union in Korea,” *The Korea Review* (September, 1905), 342-343.

30) *Ibid.*, 343.

31) W.D. Reynolds, Jr.,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Korea Mission Field* (June, 1906), 111-112.

32) F.G. Vesey, “The General Council: An Appreciation,”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08), 143.

33) *Ibid.*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여러 선교회들의 유기적 연합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합운동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교회들은 평화와 상호이해의 정신으로 서로를 만난다. 이것은 4년 전의 중요한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공동찬송가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한 공동번역이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보여 온 조바심의 원인을 제거하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선교회에서 다른 선교회로 이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합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연합에 대한 이해는 이루어졌다.<sup>34)</sup>

그러나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는, 각 교파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본국의 선교본부들의 우려와 반대, 일부 현지 선교사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결국 1910년 9월 연합공의회는 “한국에서 조직될 하나의 민족교회가 취할 완벽한 정치체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것부터 조화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생활을 공고하게 하고 초교파적 협력관계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마찰의 요인을 제거하는 즉각적인 효력을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공의회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sup>35)</sup> 그러나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의료, 출판, 선교 등의 실제적 면에서의 연합활동은 계속되었다. 연합공의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도 좋은 본보기를 제시해 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합운동을 펼쳐갔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C. 교회연합운동의 실례들

### 1. 선교지 분할협정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는 선교지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소위 ‘교계예양’(敎界禮讓, comity)이라 불리는 선교지 분할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가장 빈번한 불화의 요인이었던 선교지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으려는”<sup>36)</sup> 것이었다. 특히 1905년 9월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공의회를 결성한 이후 선교지 분할정책은 더욱 확대되었다. 1906년 북장로회의 보고서는 선교지 분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두 교단의 선교지가 겹쳐 한국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선교사들에게는 고통을 주던 여러 지역들에 연합의 원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명백해졌다. 비록 어떤 지역들에서는 두 교단 모두가 선교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연합공의회가 빠지는 곳 없이 모든 곳을 철저히 포함시킨다는 원칙 위에서 선교지 분할을 위한 조처를 올해에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sup>37)</sup>

34) W.A. Noble, “Report on the Quarter Centennial,” Fif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October 8-9, 1909,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I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소, 2000), 29.

35) C.D. Morris, “Report of the Committee on Harmonization of Polity,” Six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September 12-14, 1910,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I (한국교회사 문헌연구소, 2000), 21.

36) Horace. G. Underwood, “Division of the Field,” 213.

37)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이처럼 선교지 분할정책은 선교지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이자,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국을 빠짐없이 복음화 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05년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사이에, 1907년에는 미감리회와 남장로회 사이에, 그리고 같은 해에 남감리회, 북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서, 1909년에 이르면 서울과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상호준중의 원칙에 따라 분할하는 일이 거의 마무리되었다.<sup>38)</sup>

이런 선교지 분할은 선교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시도였다. 네비우스(John L. Nevius) 선교방법에서도 “다른 선교회와의 협력과 연합을 추구하며, 최소한 선교지를 분할한다.”<sup>39)</sup>는 것이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지 분할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장로교에 속한 교인들이 감리교인이 되고, 감리교에 속한 교인들이 장로교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다. 장로교회의 테일러(Miss Taylor)는 선교현장을 돌아보면서 받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만일 미국에서 아무런 상의나 투표도 없이 한 지역의 모든 장로교회가 총회의 결정으로 다른 교단으로 넘겨진다고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sup>40)</sup> 아무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수천 명의 감리교인이 장로교인이 되고, 수천 명의 장로교인이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치의 성령”이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것은 정녕 “해 아래 새로운 것”이었다.<sup>41)</sup>

이 선교지 분할정책이 큰 어려움 없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것은 선교사들에게조차도 충격이었다.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을 왜 자신들은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로교를 포기하고 감리교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확실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진보를 오랫동안 방해해 온 분파주의라는 구태의연한 결립들을 깨끗이 치워버리지 못하는 것인가?”<sup>42)</sup> 선교지 분할은 실제로 선교회들이 기대했던 대로 선교역량의 낭비를 막아주었고, 선교회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협력해서 일하도록 해주었으며, 교회규율을 단순화시켜 주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참으로 선교지 분할은 “한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중 하나였다.”<sup>43)</sup>

## 2. 설 연합부흥회

1905년 9월 연합공의회가 결성되었을 때, 연합공의회는 한국의 설 명절이 부흥회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1906년 설 명절 기간에 일체의 다른 활동을 삼

---

September 1906, 9.

38) C.D. Morris, “Division of Territory between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s,”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14), 19.

39) Charles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42.

40) Miss Taylor, “The Spirit of Unity shown by Korean Christian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0), 85.

41) “The United Church of Jesus,”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10), 43.

42) *Ibid.*, 45.

43) C.D. Morris, “Division of Territory between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s,” 18.

가고 동시다발적인 부흥회를 개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무스(J.R. Moose), 게일(J.S. Gale), 분커(D.A. Bunker), 레이놀즈(W.D. Reynolds)의 공동명의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최우선적인 목표는 새로운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영적인 일이어야 한다. 먼저 그 일에 *깊이*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넓게* 확장될 것이다. ... 선교지회들이나 큰 도시들에서 설 연합부흥회가 열릴 것이고 조사들과 성서공부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부흥회가 성서공부로 진행된다면, *머리* 보다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주제들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죄, 회개, 고백, 죄용서, 구원의 확신 같은 교리들이 제시될 수 있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더 없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인도되어야 한다.<sup>44)</sup>

당시 선교사들은 설 명절이야말로 정치경제적으로 암울하여 “의지할 곳 도모지 없소”라고 부르짖고 있던 한국 땅에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다.<sup>45)</sup> 무스는 마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국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땅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열망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 연합부흥회가 한국의 오순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다.<sup>46)</sup>

눈에 띄는 것은 부흥운동을 통해 머리보다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고, 교회의 성장보다는 신앙의 각성과 깊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신앙의 각성과 깊이는 당연히 전도의 열기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흥을 일으켰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한 사경회는 오늘날의 성서공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설 연합부흥회는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촉매제이기도 하였다. 서울의 경우, 승동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신년 부흥회는 감리교 선교사가 인도하고, 정동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기도회는 장로교 선교사가 인도하여, 두 교단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다. 부흥운동에 있어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1906년 9월의 장로교 선교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연합운동이 선교사들과 토착 교인들 내부에 건강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월과 2월 동안 낮에 그리고 매일 저녁에 열린 특별 연합예배는 신선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감리교회에서 열린 집회는 장로교인의 인도로 개최되었고, 장로교회에서 열린 집회는 감리교인의 지도를 받았다. 서울에서 기도회에 1,000여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동교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으며, 연못골교회와 중앙교회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기도하였다.<sup>47)</sup>

이와 같은 획기적인 강단의 교류는 오늘날도 드문 일이다. 이런 연합부흥회의 물결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계절”(season of revival)이 오게 하였고, 이것은 곧 1907년의 “영적 폭풍”(spiritual storm)으로 확대되었다.<sup>48)</sup>

44) “A Call to a Special Effort,”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5), 30.

45) J.R. Moose, “A Great Awakening,”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06), 51.

46) *Ibid.*, 52.

47)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September 1906, 8.

### 3. 연합사업들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지 분할이나 연합부흥사경회 외에도 다양한 연합사업과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 중에서도 교육에서의 연합이 가장 돋보였다. 교육사업의 연합에 적극적이었던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선교역량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학년별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육 사업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게 되어, 연합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sup>49)</sup> 연합 교육사업은 교육을 교과마다 따로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견지에서도 중요했다. 교육의 목적이 이 교과나 저 교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인력과 시설을 절약하기 위해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운동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연합으로 교수진을 꾸리고 운영했던 평양연합대학(Pyongyang Union College, 현 숭실대학)이다. 평양연합대학은 1897년 베어드가 학당을 꾸린 데서 시작하여 1905년 단과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운동이 무르익어 가던 중 베어드는 직접 감리교 대회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에서 서로가 연합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는 재정의 3분의 1을 제공하면서 모든 권리는 장로교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평양연합대학에 참여하였다. 평양연합대학은 1906년 9월에 기독교연합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이 대학은 공동의 시설과 연합 교수진, 300명이 넘는 학생으로 구성된 매우 성공적인 교육기관이었다.<sup>50)</sup> 윌리엄 베어드의 아들인 리처드 베어드(Richard H. Baird)는 기독교연합대학의 설립을 가리켜 근대 선교 역사에서 교회와 교육제도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시켜 주는 완벽한 협력관계를 보여준 예라고 평하였다.<sup>51)</sup>

그밖에도 서울에서는 감리교가 운영하던 배재학교와 장로교가 운영하던 경신학교가 1905년 통합되어 10월 6일 개교하였고, 1915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설립하였다. 1909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6개 선교회가 연합하는 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문제를 연구하고, 커리큘럼과 교과서를 통일하고, 교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데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되었다.<sup>52)</sup> 윌리엄 베어드는 교육에서의 연합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며,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두 개의 경쟁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믿었다.<sup>53)</sup>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1905년 연합공의회가 결성된 이후, 그동안 각자가 발행하던 주일학교 공과교재를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발행하기 위해 공과편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1907년 이후 전국에서 같은 공과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후

48) William Noble and G.H. Jones,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Korean Churches in 1907* (New York: Board of the Foreign Missions, MEC, 1908), 7-8.

49) W.M. Baird, “Pyeng Yang Academy,”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06), 221.

50) “Korean Revival,” *Korea Mission Field* (March 1908), 46.

51) Richard H. Baird, 김인수 옮김, 『배위량 박사의 한국 선교』, (서울: 쿠파출판사, 2004), 237.

52) *Ibid.*, 248-249.

53) Hugh Miller,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 Federal Council,” 256.

에는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일학교에 대한 연합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것은 미래 한국교회를 위한 대단한 성과이자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1903년 시작된 기독교청년회(YMCA) 운동도 초창기부터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08년 기독교청년회 회장이던 터너(Arthur B. Turner)는 선교회와 교회와 한국인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짐을 분담하고 연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sup>54)</sup>

성서번역과 찬송가 발행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졌다. 신앙각성과 부흥운동의 물결이 영적 폭풍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한국어로 된 성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1887년 서울에 있던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서번역 사업에 착수했는데, 1893년에 이르러서는 상설적인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마침내 1900년에 신약성서가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이를 기념하여 9월 9일 주일에 감사예배도 드렸다. 이 번역본은 개정작업을 거쳐 1906년 신약전서 성경 공인본(Authorized Version)으로 출판되었다. 구약은 1910년에 번역이 완료되었다. 그동안 성서번역위원회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모여서 번역초록을 읽고, 의문점이 생기면 세 사람의 한국인 조력자들과 의논을 하고, 성서원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번역들을 비교하고, 각종 사전과 주석들을 참고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갔다. 그런 후에도 다시 수정과 교정 작업을 거쳤다.<sup>55)</sup> 이런 노력의 결실로 우리말 성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성서번역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은 민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번역하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번역에 참여했던 언더우드는 “번역작업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민중들의 언어로 번역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sup>56)</sup>고 말하였다. 성서가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층만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번역자들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여러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그 내용을 한국인 조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언어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나 표현이 없기도 해서, 한국적인 표현을 새로 고안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 조사들도 그 내용을 일반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복음서의 몇 구절을 번역하는 데도 먼저 선교사들이 긴 토론을 하고 그 후 한국인들이 다시 쉬운 표현을 찾느라 고심하는 통에 하루 종일 걸리는 때도 있었다.<sup>57)</sup>

게일(J.S. Gale)은 성서번역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초기선교를 위한 노력은 성서번역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뉴욕에 60층 높이의 생명보험 회사를 짓는 일도 성서번역보다 큰일은 아니다. 성서번역에 10여 년이 걸렸다. 번역을 위한 토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깊이 파헤쳐야 하고, 각 단락과 각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면밀히 조사하고 숙고하고 평가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치 파나마 운하를 파는 일을 연상시킨다.<sup>58)</sup>

54) Arthur B. Turner, “A Notable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08).

55) W.D. Reynolds,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101-103을 참조하라. 또한 Reynolds가 쓴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Korea Mission Field* (June 1935), 116-118 and (July 1935), 153-154도 보라.

56) H.G. Underwood, “Bible Translating,”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1), 296.

57) *Ibid.*, 298.

58) J.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1912), 175.

참으로 60층 빌딩을 세우는 것처럼 어렵고, 파나마운하를 파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성서번역이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한글로 번역된 성서는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켰다. 또한 루터가 독일어 성서번역을 통해 그리고 칼뱅이 프랑스어 성서번역을 통해 독일어와 프랑스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한글성서는 한국 국어사에 가장 커다란 사건”<sup>59)</sup>이 되었다.

성서뿐만 아니라 찬송가, 신문, 잡지도 연합으로 발행되었다. 1905년 연합공의회 결성과 함께 선교회별로, 교파별로 제각기 사용되던 찬송가들의 합동작업이 진행되어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찬송가를 발행하였다. 이 찬송가는 1930년대 감리교가 신정찬송가를, 장로교가 신편찬송가를 별도로 낼 때까지 초교파적으로 사용되었다. 1897년부터 나오던 감리교의 『그리스도회보』와 장로교의 『그리스도신문』이 1905년 7월 1일부터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신문으로 『그리스도신문』이 되었다. 편집부는 4명으로 구성했는데, 2명은 장로교에서 2명은 감리교에서 파송하였다.<sup>60)</sup> 오늘날 초교파 연합출판사인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대한성교서회’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운영하면서 복음전파를 위한 많은 책자들을 발행하였다. 대한성교서회의 경우 6개의 선교회가 협력하여 경영자의 봉급을 지불하고, 3개 선교회에서 각각 한 사람씩 파송하여 편집부에서 전임으로 일하게 하였다.<sup>61)</sup> 특별히 장로교의 『Korea Field』와 감리교의 『Korea Methodist』라는 정기간행물이 1905년 11월 『Korea Mission Field』로 통합되어 출판되었다. 창간호에서 “교회일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면서 탄생한 이 잡지는 1941년 선교사들이 강제출국당하기까지 꾸준히 발행되어 한국교회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Korea Mission Field』는 당시에 발간된 많은 선교잡지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sup>62)</sup> 또한 매년 기도달력(Prayer Calendar)을 출판함으로써 장로교와 감리교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 IV. 교회일치와 연합을 위한 성서의 유산

다시 근본적인 질문들로 돌아가 보자.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의 머리되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1, 21, 22)

이 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

59) 전택부,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호 (외솔회, 1980), 142.

60) “Official Minutes of the Second Annual Session Korea Mission Conferenc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Korea, June 1906, 72.

61) Charles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218.

62) Hugh Miller,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 Federal Council,” 257.

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에 마땅히 ‘예’라고 응답하며 순종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위탁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7-19)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도 친히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라고 가르쳤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평화와 일치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할 때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럴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도 상승할 것이다. 전쟁과 분쟁과 나뉘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임을 가장 웅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넷째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복음전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 고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이 세대에 이루어야 할 민족적 목표가 있다면 남북한의 통일이라 할 것이다. 한국교회도 통일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교회조차 연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자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와 민족을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발하고자 한다면 교회분열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시 성서로 돌아가 보자.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치와 연합의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2-6)

에베소서 4: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과연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썼던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용을 쓰면서 노력했던가? 에베소서 4:2절은 “모든 겹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교만한 자세로, 거친 마음으로, 성급한 행동으로, 배타적 생각으로는 결코 일치와 연합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겹손, 온유, 인내, 사랑, 용서와 같이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놀랄 뿐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로마서 11:33)이다.

## V. 마치는 말

필자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귀한 유산으로 칼뱅의 교회연합을 위한 사상과 활동, 한국교회사의 초기 선교 과정에 나타난 교회연합운동, 성서가 가르치고 명하는 말씀들을 검토하였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고 있는 현실에 큰 슬픔을 느꼈으며,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칼뱅은 사들레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일치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sup>63)</sup>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칼뱅이 자신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오늘의 한국장로교회를 본다면 크게 실망하고 책망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한 세기 이전 한국 개신교의 연합운동과 일치를 향한 열망에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화상에 놀라게 된다. 지금 선교지 분할정책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는가? 장로교와 감리교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고사하고 장로교회만이 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고신이니 기장이니 합동이니 통합이니 하는 이름을 버리고 함께 모여 연합사경회라도 할 수 있는가? 초기 한국교회처럼 복음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교육, 의료, 언론 등에서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곧바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이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펴낸 칼뱅 안내서에 실린 한 논문에 “분열은 한국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현저한 특징”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sup>64)</sup> 이것이 외국 학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초대교회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하나의’(one), ‘거룩한’(holy), ‘보편적’(catholic), ‘사도적’(apostolic)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교회의 속성 중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외적인 확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의미한다.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복수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교회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일치는 “다양성 속의 일

63) John Calvin, “Reply to Sadolet,”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249.

64) R. ward Holder, “Calvin's Heritage,”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54.

치”이며, “화해된 다양성”이다.

교회의 일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일치는 천상의 불가시적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현실의 가시적 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태도나,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 왔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나, 이미 나누어진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며 운명론 뒤에 숨어버리려는 태도나, 어떤 한 교회나 교파만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는 배타적 태도로 교회 분열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실 교회의 분열 자체가 아니라 분열된 교회가 서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진짜 스캔들이다.<sup>65)</sup> 분열보다도 분열의 죄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개신교회의 연합을 위해 우리는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유산들을 계속하여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이전의 실패들을 거울삼아 서로 다름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호의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무슨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 소중하며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지역 내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지역교회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거대한 조직과 제도를 다시 만들기보다는 ‘풀뿌리’에서부터, 위로부터보다는 아래로부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이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아직 길 위에 있는 존재이다. 도상(途上)에 있는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며, 알골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으며, 투쟁 중에 있는 교회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회개와 자기 갱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표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의 개혁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교회일치와 연합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과 역사적 유산들을 21세기 한국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마땅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

65) Michael Weinrich, *Die Reformation und die Ökumene Heute*, 조성기·조용석 편역, 『종교개혁과 현대 오이쿠메네』 (서울: 한들출판사, 2010), 242.

## 참고문헌

- Baird, Richard H. 김인수 옮김. 『배위량 박사의 한국 선교』. 서울: 쿤란출판사, 2004.
- Baird, W.M. "Pyeng Yang Academy."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06).
- Bernheisel, Charles F.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김인수 옮김.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서울: 쿤란출판사, 2004.
- Calvin, John. "Reply to Sadolet."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 \_\_\_\_\_.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K.S. Reid. London: SCM Press, 195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Vol. 1-4*. ed. Jules Bonnet. New York: Burt Franklin, 1972.
- \_\_\_\_\_.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1-3*.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 Clark, Charles A.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37.
- Douglass, Jane. "Calvin in Ecumenical Context."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Gale, J.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1912.
- George, Timothy. "John Calvin and the Agreement of Zurich (1549)."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ed. Timothy George. Louisville: Westminster Press, 1990.
- Gerrish, Brian A.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Holder, R. ward. "Calvin's Heritage,"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McNeill, John T. *Unitive Protestantism: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Miller, Hugh.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the Federal Council."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34).
- Moore, S.F. "An Epoch-Making Conference in Korea."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8/9 (September 1905).
- Moose, J.R. "A Great Awakening."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06).
- Morris, C.D. "Division of Territory between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Missions." *Korea Mission Field* (January 1914).
- \_\_\_\_\_. "Report of the Committee on Harmonization of Polity." *Sixth Annual Meeting of*

-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September 12-14, 1910.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I. 한국교회사문헌연구소, 2000.
- Noble, W.A. "Report on the Quarter Centennial." Fifth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Seoul, October 8-9, 1909,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회의록』 I. 한국교회사문헌연구소, 2000.
- Noble, William and G.H. Jones.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Korean Churches in 1907. New York: Board of the Foreign Missions, MEC, 1908.
- Reynolds, W.D. Jr. "Minutes of the First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Korea Mission Field (June 1906).
- \_\_\_\_\_. "Fifty Years of Bible Translation and Revision." Korea Mission Field (June 1935).
- \_\_\_\_\_. "The Board of Bible Translator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06).
- Taylor, Miss. "The Spirit of Unity shown by Korean Christians." Korea Mission Field (April 1910).
- Turner, Arthur B. "A Notable Movement."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08).
- Underwood, Horace G. "Bible Translating."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11).
- \_\_\_\_\_. "Division of the Field."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9).
- \_\_\_\_\_.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 Underwood, Lillias H. Underwood of Korea.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Vesey, F.G. "The General Council: An Appreciation." Korea Mission Field (September 1908).
- "A Call to a Special Effort."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5).
- "Korean Revival." Korea Mission Field (March 1908).
- "Official Minutes of the Second Annual Session Korea Mission Conferenc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Korea, June 1906.
-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oul, September 1906.
- "The United Church of Jesus."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10).
- 김인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칼 정신과 사역." 『교회, 민족, 역사』. 민경배박사교회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4: 211-229.
-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전택부.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호 (외솔회, 1980).